

미국 정부, 치솟는 집세 잡기 나섰다



▲ 한 아파트의 임대 안내 표지판. 사진=shutterstock

주택 임대 비용이 치솟자 미국 정부가 부동산 임대 시장 감독 강화에 나섰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주 원칙 확립을 위해 새 대책을 발표한다"며 '세입자 권리 청사진'으로 이를 붙인 새 대책을 공개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거권 보장을 위해 집세 상승을 억제해 온 미국은 팬데믹 회복 국면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지난해 내내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면해 왔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집세가 가파르게 뛰며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집세 상승은 여전히 이어져 전문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인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고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대책에 담았다. 특히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은 세입자 신용 조사를 비롯해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FTC가 주택 임대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 20년 뒤 인구 증가 이민이 주도”

미국에서 20년 뒤에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면서 오직 이민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5일 '연합뉴스'는 미 의회예산국(CBO)이 전날 내놓은 향후 30년간 미국 인구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인구는 올해 3억3천600만 명에서 2053년 3억7천300만 명으로 매년 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전했다. 이는 1983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8%)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인구 증가는 출생, 사망, 순 이민에 의해 결정된다. CBO에 따르면 출산율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사망률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민이 점차 인구 증가에 있



▲ 시민권 신청서에서 안내 책자를 보고 있는 미국 이민자. 사진=shutterstock

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1.66명이며 30~49세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함에 따라 2030년에는 1.7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합계 출산율은 2053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이민이 없을 때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인 2.1명보다 낮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분을 채우는 것은 이민일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간 전체 인구 증가의 4분의 3을 이민이 차지하고, 4분의 1을 출생에 의한 인구 증가분이 담당한다. 이후 2042년부터는 인구 증가 전체를 이민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인구 전망 보고서는 올해 말 미 행정부 예산과 경제 전망치의 기준이 된다.

재산 줄어도 기부는 늘린 미국 갑부들

미국의 갑부들은 지난해 주식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산하 투자전문매체 펜타는 전날 미국의 자산가 상위 25인이 지난해 모두 250억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주식시장이 호조였던 지난 2021년의 200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말 현재 1천6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자의 달인' 워런 버핏은 한 해 동안 54억 달러를 기부했다. 버핏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의 합계는 515억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개인으로 꼽힌다.



▲ 미국에서 개인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워런 버핏. 사진=연합뉴스

1천2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전처 멜린다와 함께 세운 빌앤드멜린다게이츠재단을 통해 지난해 5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는 평생 384억 달러를 기부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이혼하면서 아마존 지분의 4%를 합의금으로 받은 전처 매켄지 스콧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44억3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제전문지 포브스 집계 따르면 미국의 자산가 상위 25인의 재산은 지난해 말 현재 9천360억 달러로 평가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다.

날말퍼즐 정답

	1	신	문	2	지			3	공		
4	삭	신		5	시	6	종	일	관		
		당			결		7	장	8	비	
9	어	부	10	지	리			11	추	상	
	깃		인		12	가	럼	13	주	구	
14	장	15	도		16	희			마		
		17	토	정	비	18	결		19	간	파
		리			20	백	두	산			

1457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9	3			4				7	
1				8	7				
	8	7	3				1		
		9			4	3		1	
	6						7		
7			9		3		4		
							7	9	5
		6		9	1				
	9	4					6		